

롯데백화점 전주점,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

31일까지 사은행사 · 특가전 풍성... 키즈관 리뉴얼 · 편의시설 확대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개점 22주년을 맞아 지역 고객들을 위한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22주년 기념 쇼핑 페스티벌'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지난 22년간 전주점을 찾아온 전북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백화점 전방에서는 브랜드별 특가 상품전이 열리며, 상품군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 상당의 사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식품 및 F&B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백화점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매일 선착순으로 배포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개점 22주년을 기념한 특별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미용 티슈와 식품 이용권, 롯데 피자 세트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개점 22주년을 맞아 지역 고객들을 위한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등을 선착순 증정하며, 앱(APP)을 활용한 스마트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1만원 이상 영수증 5회 인증 시

L.POINT 1만점을 지급하는 등 앱 전용 혜택도 제공한다. 전주점은 쇼핑 축제와 함께 고객

쇼핑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15일 6층에는 대형 팝업 행사와 테마전을 운영할 수 있는 신규 '점점사랑'을 조성했다. 오픈 기념 행사로는 해외 직수입 빈티지 상품을 선보이는 '비바무여 해외 직수입 빈티지 팝업'과 커스텀 키보드 관련 상품을 소개하는 '키터뷰어 in 전주'가 진행된다.

22일에는 5층 키즈 전문관도 새롭게 문을 연다. 나이키 키즈, 노스페이스 키즈, 마린패키지, 스토케 등 5개 브랜드가 신규 입점하며, 뉴발란스 키즈와 폴로 키즈, 부가부 등 총 16개 아동·유아 브랜드가 리뉴얼 오픈해 차별화된 키즈 전문관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초보 운전자와 자녀 동반 고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여성 배려 주차장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본관 지하 2층 중심의 10면 규모에서 본관 지하 3층과 별관까지 포함해 총 117면으로 늘려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제주 혁신기술 교류·협력 강화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컨소시엄, 제주 배터리 재자원화 현장 방문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컨소시엄 참여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배터리 재자원화 현장을 방문하고 혁신기술 교류 및 실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1일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 배터리 재자원화센터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전북·제주 지역 기술혁신허브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북TP 과학기술진흥단을 비롯해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나노솔루션, KIST 전북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주TP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찾아 재활용 배터리 성능평가와 시험·인증 현황을 둘러보고 관련 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재활용 배터리 성능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1차년도에 발굴된 핵심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R&D) 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기술



혁신허브 사업을 수행 중인 전북과 제주 간 혁신기술을 공유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 방안과 사업 파급효과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장 방문 이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컨소시엄은 '2차년도 지역기술혁신허브 전략기술 총괄 실무 협의회'를 열고 사업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LFP 배터리 재활용과 실리콘 음극재 분야 연구개발(R&D), 연구개발사업화(R&BD) 참여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기술 검증과 사업화 전략 구체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ΔLFP 배터리 재활용 분야 연구 중간점검 및 샘플 공유 체계 구축 Δ실리콘 음극재 분야 전극 설계 조건 기술교류와 사업 운영 효율화 Δ1차년도 발굴 기술 기반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제22년차 정기총회 · 세미나 열려

지역 중소기업 CEO 1000여명 참석

JB금융그룹 산하 전북은행은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제22년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은 도내 중소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인 모임으로, 지난 2003년 창립 이후 올해로 22회째 정기총회를 맞았다. 회원 간 교류와 친목 활동은 물론 지역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 대표 경제인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즈니스클럽 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라이언자산운용 이상훈 부사장이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춘일 은행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동반 성장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기반 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산하 전북은행은 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 '제22년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익산 식품 포장재 기업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이 21일 전북 익산의 식품 포장재 전문기업을 찾아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협조 아래 이뤄졌으며, 차관은 익산시에 위치한 식품 포장재 생산업체 (주)새롭 생산공장을 찾아 현장 경영

상황을 확인했다.

(주)새롭은 식품 포장재를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현장에서 명미순 대표는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



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용석 차관은 "어려운

대의 환경 속에서도 생산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수출바우처 1,000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기업 부담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금 확대를 통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지역특화자원 연계 케어푸드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2026년 지역특화자원 연계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임광대학교 글로벌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과 연계해 도내 식품기업과 지자체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사업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케어푸드 제품개발과 기능성·효능 평가를 통해 제품의 과학적 우수성을 검증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바이오진흥원을 비롯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소 등 6개 지자체 연구소와 도내 식품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고품질농산물과 특수영양식품 등 케어푸드 제품의 기획과 제조, 상품화 등을 담당하며, 연구소는 원료 및 제품의 기능성·효능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 데이터·AI 협력 본격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에너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LG AI연구원, NC AI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에너지 데이터 안전 개방 및 연계·유통 체계 구축 △에너지 분야 AI 모델 공동 개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체계 강화 △AI 기반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